

## 축산관련학과 교수, 사료 부가세

### 영세율 전면 적용 촉구 서명

-홍보부-

지난 12월 28일 전국의 22개 대학 축산관련학과 185명의 교수들은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시름에 쌓인 양축농가에 다소라도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전면 적용해 줄 것에 대한 서명을 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전국 대학 축산관련대학 교수 일동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UR·WTO 등으로 우리 나라 축산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업계는 국산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의 한 방안으로 배합사료 부가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오래전부터 건의해 왔으나 정부는 부업양축농가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다행한 일이나 한편으로는 전업축산 농가가 오히려 영세하게 분할될 우려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업축산 농가의 육성이란 축산정책과 발전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한편 계속되는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은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적용하여, 양축농가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 일동은 “그간 우리 나라의 축산은 정부의 축산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축산농가의 열성과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농촌은 개방화에 따른 국산 농산물이 국제 경쟁력을 아직 확보치 못해, 농축산 농가로서는 생계의 위협까지 받게 될 처지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수 농민의 이동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격감과 농촌 환경의 급격한 변화까지도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국 대학 축산관련교수 일동은 우리나라 축산산업의 안정적 발전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방으로 시름에 쌓여있는 양축농민의 한결같은 요망 사항이기도 한 배합 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전면 조속히 적용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서명을 하였다.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 요청 서명에 대한 발기인 명단과 서명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영채 교수(중앙대학교),

김중계 교수(제주대학교),

이무하 교수(서울대학교),

방극승 교수(동아대학교),

신형태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종완 교수(공주대학교),

윤창현 교수(경상대학교),

조현조 교수(상주산업대학교),

신원집 교수(전북대학교),

정길생 교수(건국대학교),

송해범 교수(대구대학교),

정근기 교수(영남대학교),

정영호 교수(중부대학교),

전우복 교수(전남대학교),

윤종택 교수(안성산업대학교),

김종욱 교수(충북대학교)

한성욱 교수(충남대학교)

석호봉 교수(단국대학교)

지규만 교수(고려대학교)

김동균 교수(상지대학교)

이영철 교수(강원대학교)

이은봉 교수(순천대학교)

최광수 교수(경상대학교)

## 건의서 서명교수 명단